

2023 여름

제223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소식지

# 시로 사랑하여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 발행인 정순택 |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3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별관 525호 해외선교봉사국

전화 02)727-2407, 2409, 2424 | 이메일 mission@seoul.catholic.kr | 팩스 02)727-2411 | 홈페이지 http://mission.catholic.or.kr

# 해외 선교 사제

11개 국가 22명

• 독일 신정훈 미카엘

• 프랑스 이승규 클레멘스

• 스페인 고가람 스테파노



일본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P.09)

신광수 베드로

김태근 베드로

김윤복 모세

김필중 세례자요한

김성천 스테파노

정해성 베드로



대만

김재원 베드로샤넬 (P.20)

김경진 베드로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여름호 특집

1. 우.본.소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 일본 안민우 신부 (p.09)

2. 2023년 해외 선교 사제 파견미사 | 과테말라, 미국, 일본, 프랑스 우석제·이준호·정해성·이승규 신부 (p.13)





• 미국(알래스카) 민경일 아우구스티노 (P.04)  
이준호 베드로

콜롬비아 박형문 바오로

미국 박민서 베네딕토

멕시코 양경모 대건안드레아

과테말라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우석제 도미니코

• 페루 양용석 프란치스코 (P.16)



칠레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선교지 이야기

# 미국 앵커리지 · 주노대교구

## 민경일 아우구스티노 신부

모두들 주님 은총 안에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 글은 “일상으로의 회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3년도 더 지난 지금, 5월 11일부로 미국 입국자에 적용되던 백신 접종 의무가 해제된 것과 더불어, 미



## 알래스카(미국)

주(州)도 주노

면적 1,717,856km<sup>2</sup>

인구 710,249명

종교 개신교 37%  
가톨릭 16%  
몰몬 5%  
동방정교회 5%  
유대교 0.5%  
이슬람교 0.5%

성인 14명

복자 7명

수호  
성인 무염시태

관할 (미국 전체 기준)

구역 동방가톨릭관구 1개  
대교구 33개  
교구 160개  
군중교구 1개  
성직자치단(성공회) 1개

국의 가톨릭 교회는 빠르게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모임도 많아지고 왕래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성당에서 임기의 종반을 맞이하게 된 올 해, 저희 성당은 사순시기를 ‘마더 테레사’의 전기 영화를 보며 뜻깊게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간혹 비정기적으로 ‘영화의 밤 (Movie Night)’이라 하여 신자들을 성당으로 초대해 함께 (주로 성인에 관련한) 영화를 보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번 ‘마더 테레사’ 전기 영화 관람이 그러한 활동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었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제가 준비한 피자를 나누며 즐겁게 출발했지만, 영화의 내용이자 마더 테레사 성녀의 삶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기에, 영화를 관람한 한 여학생은 영화가 끝난 뒤에도 큰 감동을 받았으며 펄펄 울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다시 시작한 활동 중의 하나로 성 패트릭 축일(3월 17일) 전후에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 패트릭 디너 & 콘서트”도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무려 4년만에 다시 열린 이 행사는 마을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고, 티켓 판매 시작 1주만에 모든 예약이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행사의 수익금은 본당의 청소년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사용되며, 사진에서 연주자 중 좌측 4명이 모두 본당의 신자들입니다.



올해 부활절 성삼일은 신자들에게 조금 더 큰 기쁨으로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가톨릭 교회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미사 중에 양형 영성체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 시기 이후 3년 이상의 시간 동안 성혈을 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코로





나 시대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이번 부활 성삼일부터 성혈을 포함한 양형 영성체가 다시 허용되어 신자들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미사 중 마스크 착용 자율화는 이미 1년여 전에 시행되었지만, 이제야 진짜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으며 대교구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사진은 올해 부활절 맞이 성당 장식을 마치고 함께 수고한 신자분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각종 활동들이 재개된 것은 본당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앵커리지-주노대교구청에서 근무 중이신 원주민 사목 담당 프랜시스 국장 수녀님과 신앙교육국장이신 리즈 자매님께서 본당을 방문하여 신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교구청의 국장님들이 본당을 방문하는 게 무슨 큰 일인가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앵커리지에서 저희 본당을 방문하는 여정이란 비행기를 두 번 갈아타고 7~8시간이 걸려서야 올 수 있는 어려운 발걸음입니다. 두 분





의 국장님들은 본당에 머무시는 동안 지역 방문, 본당 내 교리교사와의 만남, 원주민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교구와 본당 모두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첫 사진은 본당에서 차로 약 한 시간 정도 떨어진 하이다부르크(Hydaburg)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 마을은 ‘하이다’라는 원주민 부족이 많이 사는 곳이기에 붙여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본당의 알래스카 원주민들과 함께 한 모임 중 찍은 사진입니다. ‘원주민’의 부류에는 원래 전통적인 알래스카 원주민들과, 다른 인종과의 혼인으로 인한 그 후손들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알래스카 원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고유의 부족 이름도 여전히 지니고 있습니다.



두 분의 국장님들은 제가 사제관으로 초대하여 직접 요리한 식사로 환영의 만찬을 즐겼는데요, 감사하게도 모두 맛있게 드셔 주시고 요리법까지 적어 가셨습니다. 시골에 떨어진, 그리고 섬 위에 존재하는 작은 본당이라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각종 교육 등의 기회도 적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번 대교구청 국장님들의 방문은 본당의 사정을 알리고, 또 교구로부터 도움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한 아주 뜻 깊은 일정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한지가 몇 년 되다 보니 대교구 내에서 직책도 몇 개 맡게 되었습니다. 2년 전부터는 대교구의 참사 중 한명으로 봉사하고 있고, 전례위원회와 성체성사 활성화(Eucharistic Revival) 운동 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찌다 보니, 교구 내 성체성사 운동의 로고 송을 쓰게 되었는데요, 작곡한 노래를 등록해야 했기에, 뜻하지 않게 미국 정부에서 인정한 저작권 보유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별 일이 다 있죠^^

어느덧 지금 성당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교구 내에서의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7월 초에 아마도 새로운 임지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본당이 워낙 앵커리지-주노대교구의 거의 최남단이라,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북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다음 소식은 아마도 새로운 임지에서 보내 드릴 것 같네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기도하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 우·본·소

일본 | 오사카대교구



##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신부

찬미 예수님!

일본 오사카대교구에서 선교 중인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신부입니다.

기나긴 어둠이 끝나고 밝은 아침이 온 것처럼, 3년간 전 세계를 고통과 시련에 몰아넣었던 코로나 상황이 이제 많이 진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듯 작년 겨울과 올봄에는 정말로 많은 신자분이 오랜만에 일본을 방문해 주셔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40주년 기념미사와 함께한 어르신들 안수 축복과 기념사진 촬영





저는 오사카대교구에 속하는 도시이자 오사카보다 약간 서쪽으로 위치한 ‘고베’에서 사목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근교에는 교토, 나라, 고베 세 도시가 있는데, 그중 고베는 서양에 개항을 한 근대부터 발전해온 도시라, 다른 두 도시에 비해 역사적인 매력이 있는 여행지가 아니어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대에 개발이 시작된 만큼 도시의 구성이 깔끔하고, 1995년 한신 대지진 이후에 도로와 주택의 구획을 완전히 새롭게 설정하여 바둑판 형식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신도시 주택가 느낌의 세련된 마을들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행하거나 놀기 좋은 곳이 아닌 살기 좋은 도시인 셈입니다.

그중에 제가 사목을 담당하고 있는 스즈란다이 성당은 고베시의 북쪽, 산을 두 개 정도 넘어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산 위 마을에 있는 성당입니다. 1981년 성당을 완공하고, 지난 2022년 9월 18일에 40주년 기념미사를 교구장님과 함께 봉헌했습니다. 성당의 형태는 전형적인 수도원의 ‘ㄱ’자 형태로, 파리와방선교회 소속 사제인 초대 주임신부님의 성향을 따라 목조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성당의 등록 신자 수는





스즈란다이 성당은 1981년 파리외방전교회 신부님이 지으신 'ㄱ'자 형태의 목조 건물입니다(전방 우측에 따로 공간이 있습니다).



교구장님과 함께한 40주년 기념미사

## 일본

**수도** 도쿄

**면적** 37.8만km<sup>2</sup>  
[세계 61위,  
한반도의 약 1.7배]

**인구** 1억 2,626만명  
[세계 11위]

**종교**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종교) 84%  
불교 66.8%  
기독교 1.5%, 기타

**성인** 42명

**복자** 396명

**수호 성인** 성 세례자 요한

**성인**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관할** 대교구 3개, 교구 13개

**구역** 성직자치단(성공회) 1개

약 600명, 주일미사 참례는 약 80~100명 정도인 소박한 성당입니다.

저는 40년이 넘은 이 성당의 5대 주임신부입니다. 이 성당을 지으신 파리 외방 선교회의 '로제 벨로' 신부님께서서 1981년부터 2012년 은퇴하실 때까지 장장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본당의 주임으로 지내셨기 때문에 2022년에 부임한 제가 5대 주임신부가 됩니다. 짧으면 1년, 길어도 3년이 임기였던 저로서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벨로 신부님의 기나긴 종신 주임사제 생활은 성당 구석 구석에 녹아있는 그분의 묵상과 기도, 그리고 신자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의 경우 본당의 주임신부가 5년 정도이기 때문에 매번 바뀌는 신부님의 성향에 따라 봉사자들도 활동하다가 쉬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 스즈란다이 성당의 경우는 봉사자들이 오랜 기간 휴식이나 냉담 없이 꾸준하게 봉사하면서 사목회의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미사에 참례하는 신자가 80명인데, 일반 봉사자를 제외한 평의회 임원만 15명이 넘는 아주 활동적인 성당입니다. 선교 사제가 30년이라는 긴 시간 한 성당에 봉직하며 신자들과의 친교와 신뢰 속에 함께 성장하여 교회 공동체를 키워온 것입니다.

이 성당에 부임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저이지만, 스즈란다이 성당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봉사자들을 볼 때마다 가능하다면 어떤 성당에서라도 10년 이상의 긴 시간을 신자분들과 신뢰를 쌓아가며 탄탄한 본당 사목회를 구성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한 신자들이 본당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원해도 사제가 부족하여 공소가 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본의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총과 한국 교회의 도움을 통해 더욱 풍성한 선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미사 참례자가 80명이 안되지만 사목회의에 참석하는 임원만 15명이 넘는 활발한 본당입니다.





## 해외 선교 사제 파견미사

2023.3.24

우석제 도미니코(파테말라 산티아고), 이준호 베드로(미국 알래스카), 정해성 베드로(일본 오사카), 이승규 클레멘스(프랑스 뤼송) 신부님들의 파견미사가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새로 파견받은 사제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해외 선교 사제 파견미사

2023.3.24

- ① 선교 사제 파견 축복 예식
- ② 선교 사제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전달 예식



| 우석제 도미니코 신부님 |



| 이승규 클레멘스 신부님 |









# 페루 카라바이요교구

## 양용석 프란치스코 신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는 페루에서 선교하고 있는 양용석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 글을 쓰는 4월 말 한국에서 들려오는 날씨 소식은 엘니뇨 현상으로 올여름이 무척 더울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페루는 이미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보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곳 또한 엘니뇨 현상으로 4월 중순까지 무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예년 같으면 가을 날씨로 접어들었어야 할 3월까지도 올해는 유난히 더웠고 4월 말이 되어서야 더위가 꺾였습니다.





---

## 페루

**수도** 리마

**면적** 1,285,216km<sup>2</sup>  
[세계 19위,  
한반도의 약 6배]

**인구** 3,282만 4,358명  
[세계 42위]

**종교** 가톨릭 76%  
기독교 14.1%  
기타 4.8%, 무교 5.1%

**성인** 6명

**복자** 5명

**수호** 리마의 성녀 로사

**성인** 성 마르티노 데 포레스  
성 투리비오 데 모그로  
베호

**관할** 대교구 7개, 교구 19개

**구역** 성직자치구 11개  
대목구 2개  
군중교구 1개

---

게다가 여름에 좀처럼 비가 오지 않는 수도 리마와 몇몇 도시에 많은 비가 내려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신자들과 미사와 모임을 하면서 수재민들을 위한 영적, 물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힘썼고, 최근에는 조금씩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움 안에서 어느덧 5년째 이곳 리마 북부에서 선교 생활 중인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자들보다 낯익은 신자들이 더 많아졌고 신자들 역시 낯선 신부가 아닌 익숙한 신부로서 저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점점 익숙해져 가는 본당 생활 안에서, 이 익숙함이라는 것에 대한 경고와 감사가 저의 묵상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부터 본당에서 청년 사목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담당하는 공소에서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본당 전체 청년들과 함께 1년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보지는 않았습니

다. 청년 교리교사들과 교리교사가 되기 위한 이들을 위해 교리학교를 준비합니다. 각 공소의 청년들 200여 명이 모여 신입생부터 4학년까지 성경, 철학, 성사, 교리 교수법 등을 배웁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다시 배워야 했고 - 사실 어른들과 대화할 때보다 말도 더 빠르고 언어도 줄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교리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익숙함에 젖어 있던 저에게 경종을 울리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순시기가 시작되면서 교리학교를 수료한 청년들의 첫영성체와 견진교리를 준비하게 됩





니다. 올 한해 성사를 받게 될 청소년 혹은 청년들에게 접수를 받고, 그들과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피정입니다. 첫 영성체 대상자는 1박 2일, 견진성사 대상자는 2박 3일 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피정이 그간의 여정의 마지막이며 이후 그들은 성사를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공소의 청년 대표들은 공소의 청년들을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청년 구역 미사, 토요일 저녁에 이루어지는 카페 타임, 본당의 날 준비, 청년들이 부족한 공소 지원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사항 회의가 거듭될수록 스스로에 대한 답답함과 피곤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본당 사목에 더 깊숙이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보다 오랫동안 사목해 왔던 신부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곳도 청소년, 청년들의 교회 참여 수가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의 여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들을 교회에 초대하는 역할이 저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다른 익숙함이 저에게 필요해진 것입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것 역시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익숙해질 것이고, 또 다른 익숙함이 저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을 도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에게 주어진 이 선교의 삶에서 내가 정한 틀 안에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장에서 익숙해지고 끊임없이 감사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시기를 보내면서 제 삶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워져야 함



익숙한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제가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또 다른 것에 익숙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기도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 대한 감사 뿐만 아니라 제가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또 다른 것에 익숙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기도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이곳 본당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부활 시기 행복하게 보내시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교지 이야기

# 대만 신주교구

김재원 베드로 샤넬 신부

신앙의 선물 (Fidei Donum)

찬미 예수님~

모두 평안하신가요? 여기 대만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이 사그라들고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대체로 개방적인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성당에서는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미사를 드리는데요, 면역력이 약



---

## 대만

**수도** 타이베이

**면적** 3.6만km<sup>2</sup>  
[세계 136위,  
남한의 약 1/3]

**인구** 2,381만명  
[세계 57위]

**종교** 불교 35.3, 도교 33.2%  
기독교 3.9%  
전통도교 또는  
전통유교 10%,  
기타

**관할** 대학교 1개  
**구역** 교구 7개

---

한 고령의 신자들이 비교적 많아서 마스크 해제에 대해 아직 신중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년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사를 드리다 보니 이제는 저도 습관이 되어 뭔가 허전한 기분에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사를 드린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선물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도 물론 기쁘지만, 받는 이가 행복해할 때 주는 사람도 기쁘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을 고를 때에는 그 안에 어떤 가치를 담아 준비하게 됩니다. 가격이 비싸거나, 혹은 비싸지는 않더라도 선물에는 정성과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선물은 개인 대 개인으로 할 수 있지만, 교회 대 교회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이 물건을 주고받는다면, 교회 대 교회 간의 선물은 물건이 아닌 신앙을 주고받습니다. 선물이 사람 간에 정을 쌓고 관계를 맺게 하듯, 교회의 선물은 신앙의 유대를 맺게 합니다.

교구 대 교구 간의 계약을 통해 선교 사제를 파견하는 것을 ‘피데이 도눔(Fidei Donum)’이라고 말합니다. 번역하면 ‘신앙의 선물’이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부족한 교회에 다른 국가, 혹은 다른 교구에서 사제를 파견해주는 것, 그래서 그곳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선물’입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가 선교회 혹은 수도회를 통해서 외국인 선교 사제를 받고 있습니다. 교구 사제를 다른 곳으로 파견할 만큼 여유가 있는







교회는 드뭅니다. 그래서 저도 ‘피데이 도눔’으로 파견될 수 있었던 것이 하느님께서 한국교회, 특히 서울대교구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 먼저 감사드리게 됩니다.

대만에서 발령받은 첫 번째 본당의 신자들에게 처음 인사를 드릴 때, 저는 ‘피데이 도눔’을 통해서 온 서울대교구 신부라고 소개했습니다. 신앙의 유대로 서울에서 보내 준 선물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저 자신을 선물이라고 소개하다니, 지금 떠올려 보면 참으로 오글거리는 표현이었습니다….

선물… 그런데 이것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나 자신이 교회의 선물이 된다는 것, 서울에서 신주로 보내 준 선물이라는 것. 내가 이 공동체에, 이 교회에 선물이 된다는 것. 그 말은 나 자신으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고, 열정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고로 선물이란 받는 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어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 본 적이 있었나?’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있을까?’

본인이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아마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선물이고 존재만으로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 그리고 주는 쪽에서도 의미와 정성이 있어야 다른 이에게 선물하는 것이니까. 나 자신이 선물일 때, 나는 보낸 쪽에서도 받는 쪽에서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선물로서 가치와 의미가 있을 때, 양쪽 모두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 본 적이 있었나?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있을까?’ 본인이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아마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선물이고, 존재만으로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해외 선교사제 명단

[11개 국가 22명]

국가명	이름	국가명	이름
과테말라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일본	김태근 베드로
	우석제 도미니코		김윤복 모세
대만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신광수 베드로
	김재원 베드로사벨		김필중 세례자요한
	김경진 베드로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미국	민경일 아우구스티노(알래스카)		김성천 스테파노
	이준호 베드로(알래스카)		정해성 베드로
	박민서 베네딕토	프랑스	이승규 클레멘스
스페인	고가람 스테파노	콜롬비아	박형문 바오로
페루	양용석 프란치스코	칠레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독일	신정훈 미카엘	멕시코	양경모 대건안드레아

+ 선교 중이신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 선교를 위한 기도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  
말씀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고,  
순교자들의 신앙 위에 한국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도와 희생과 열성이 부족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당신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어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선교의 열정으로 하나 된 저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3월~5월 납부일 기준]

강덕금 강명희 강문주 강민정 강서혜 강선경 강선홍 강수희 강신득 강영자 강이순 강정애 강정희 강지현 강진선 강춘희 강판현  
강풍자 강혜란 고경식 고영임 고윤숙 고은실 고인영 고정원 고혜숙 공정삼 박상원 박희경 구가은 구모석 구민영 구민회 구승모  
구연모 구자은 권경애 권성혁 권오경 권오영 권옥수 권익란 길신영 길혜자 김경란 김경희 김공례 김광자 김국희 김규엽 김규태  
김금자 김기수 김기용 김길옥 김나은 김난옥 김남균 김다영 김덕수 김도연 김동구 김동현 김란숙 김명옥 김명희 김묘식 김미경  
김미숙 김미순 김미영 김미자 김미재 김미하 김민성 김민수 김민욱 김민정 김민주 김민준 김병국 김봉조 김봉흠 김상욱 김선태  
김선희 김성년 김성호 김성희 김세령 김세인 김송태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수희 김숙자 김순금 김순동 김순자 김순희  
김승규 김승희 김시호 김신순 김애생 김애정 김양자 김연수 김영덕 김영미 김영석 김영신 김영애 김영운 김영조 김영희 김옥심  
김옥제 김완식 김용기 김용혜 김윙희 김우경 김우찬 김원선 김원임 김원중 김원철 김월순 김유경 김유빈 김유정 김은자 김인복  
김인수 김지원 김장묵 김재동 김점숙 김점순 김정란 김정복 김정숙 김정애 김정오 김정용 김정희 김종철 김종필 김주경 김주현  
김중자 김지민 김지애 김진영 김진홍 김진희 김찬영 김채희 김청자 김춘숙 김충희 김태순 김태윤 김평화 김학덕 김한근 김향림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준 김혜숙 김효준 김효철 김후덕 김희령 김희선 김희정 나범수 나석연 나정애 남기완 남승관 남승민  
남 정 남정희 남하현 노승경 노승주 노옥란 노재영 노혜영 맹미숙 문억남 문월순 문준철 문태주 민은하 민정묘 박경숙 박경진  
박경희 박고운 박금순 박기식 박남주 박다은 박명랑 박명숙 박미하 박병선 박봉자 박설진 박성규 박성보 박세진 박수진 박연수  
박영숙 박영신 박옥희 박유나 박윤경 박은덕 박은진 박은호 박정남 박정숙 박정옥 박정호 박종숙 박주영 박지영 박지현 박진복  
박진수 박진희 박찬중 박태련 박태안 박혜경 박혜숙 박효숙 박효진 반세록 방수희 방애자 배귀선 배근아 배수정 배영민 배현열  
백경서 백명옥 백선혜 백승자 백영숙 백은남 백은숙 백일순 변광국 변신호 사춘숙 서대관 서수용 서숙자 서순자 서언나 서영숙  
서영순 서영진 서용재 서유진 서주영 서지영 서효숙 석정미 석진혁 성경희 성락숙 성원경 성윤석 소정윤 손명숙 손봉희 손태호  
손효영 송근선 송금선 송민식 송영남 송이중 송재일 송진아 송평근 송혜원 신경애 신미경 신서영 신선미 신선희 신수경 신수점  
신양선 신용순 신유리 신윤숙 신재승 신재영 신정삼 신정환 신종훈 신지은 신 현 신현화 신혜옥 심근자 심영란 안경숙 안다영  
안명순 안문숙 안성준 안숙영 안영춘 안윤찬 안종임 안종혁 안형숙 안호현 안효일 양기덕 양길자 양대동 양병숙 양선자 양성훈  
양우석 양정훈 양하나 염민영 염주영 염지원 연연흠 연정숙 연재현 연현철 오귀애 오미희 오세성 오영선 오목남 오인환 오정석  
오정훈 오중숙 오중훈 오주현 오지철 오지현 오진선 오철환 오춘매 오춘숙 오충기 오현정 오희수 오희숙 옥다솔 왕규철 왕은순  
우종철 원경식 원영연 원인영 유경자 유미숙 유 숙 유승연 유영웅 유윤식 유인숙 유지민 유한석 유한주 유해영 유희경 육소인  
윤경애 윤도희 윤동노 윤미애 윤 배 윤선화 윤소영 윤은희 윤인선 윤재후 윤지숙 윤진숙 윤필용 윤현옥 윤홍자 윤효석 이강석  
이건희 이경애 이경여 이경옥 이경혜 이경환 이규원 이근택 이금숙 이금주 이길자 이나은 이다은 이도근 이두식 이만수 이병욱  
이미경 이민재 이방자 이병열 이병주 이보차 이복금 이복동 이복순 이상구 이상귀 이상엽 이선민 이선애 이성범 이성자 이성희  
이소연 이숙노 이순금 이순명 이순이 이순자 이순엽 이양자 이연수 이연향 이연희 이영순 이영임 이영희 이예숙 이예진 이옥란  
이옥희 이용승 이우령 이운천 이원미 이유진 이은정 이은태 이인숙 이인순 이인욱 이인자 이재준 이재희 이정우 이정민 이정연  
이정옥 이정원 이정희 이재현 이종임 이준화 이지옥 이지인 이지현 이지훈 이창경 이창엽 이채미 이철환 이춘자 이태숙 이태종  
이현경 이현아 이현애 이형자 이혜련 이혜영 이 호 이홍재 이희나 이희숙 임경애 임교선 임대홍 임동은 임목상 임미자 임미정  
임병남 임복덕 임선혜 임수연 임수주 임순자 임순희 임옥연 임용숙 임정렬 임주연 임태현 임현준 임혜자 장명수 장명훈 장복자  
장순자 장용근 장재진 장정례 장정순 장진희 장착한 장춘자 장혜원 장효숙 전경복 전동원 전병주 전성실 전옥순 전용민 전은경  
정경균 정경화 정대균 정동욱 정병희 정상은 정상인 정선경 정선화 정소영 정순이 정연호 정영선 정완식 정용운 정윤희 정재현  
정정윤 정지혜 정진규 정찬훈 정태양 정태원 정평화 정홍경 정희원 정효남 정훈채 정희자 제민경 조건운 조경자 조나라 조도연  
조문경 조병희 조부귀 조우진 조원주 조주연 조현수 조혜진 조희문 주선미 지정순 지창순 지 형 진갑연 진정자 진창환 차영미  
채상경 채종서 채형찬 채희정 천유진 최강호 최경희 최길보 최명근 최문성 최보성 최선명 최성지 최성진 최성태 최세화 최소중  
최숙희 최승한 최영옥 최영호 최목경 최목란 최 용 최은하 최원우 최원정 최윤보 최은영 최정민 최정은 최정자 최제원 최준일  
최진이 최춘자 최한기 최해순 최현주 최형기 최호순 최한희 최희중 추명진 탁정환 태연순 태철민 하명자 하복례 하봉자 하정순  
하지운 한미정 한승지 한영미 한윤예 한정우 한화수 함재정 허 경 허경순 허미래 허영진 허지희 현문섭 현성순 현정애 현해서  
홍권실 홍금선 홍성준 홍성숙 홍숙희 홍순옥 홍승예 홍승표 홍영덕 홍인자 홍재모 홍정자 홍정희 홍주희 홍청자 홍필선 황경혜  
황규영 황순자 황영옥 황은희 황정록 황정숙 황지선 황춘희 김미가엘 박마리아 성희찬이 돈암동성당 방학동성당 킹스쿨학원 이행자  
임정옥 Fr.구본석 Fr.김연범 Fr.박규흠 Fr.박민재 Fr.박우준 Fr.이계호 Fr.이병철 Fr.임상무 Fr.황중호 익 명



#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루카 9,60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산하 단체인 해외선교후원회는, 현재 전 세계 11개 국가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고 있는 22명의 서울대교구 소속 선교 사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과 그들 곁에서 땀 흘리고 있는 선교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문의** | 02) 727-2407, 2409

**후원 미사** | 매월 첫 목요일, 가톨릭회관 1층 강당

**홈페이지** | <http://mission.catholic.or.kr>



##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 미사 · 특별 강의:** 월례 미사 및 해외선교 관련 행사에 초대합니다.
- **소식지:** 해외선교사제와 후원회 소식이 담긴 간행물을 분기별로 우편발송 해드립니다.
- **연말정산:** 후원금을 납부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신청자에 한함]

※ 회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한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구 방침에 따라 회원명을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 사제들이 미사와 기도 중에 후원회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 후원 계좌 -

우리 454-035571-13-101 · 국민 375-01-0091-080 · 신한 140-009-624437 · 농협 386-17-002881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 후원 방법 [①,② 중 택일] -

① QR 코드 접속 또는 ARS 1877-1336

- CMS(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정기·일시 후원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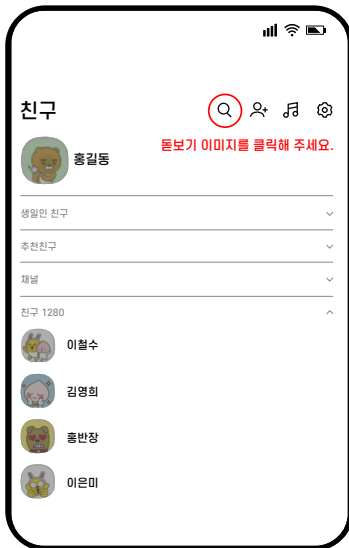
② 직접 후원계좌로 송금 또는 자동이체 신청 후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위의 4개 은행 중 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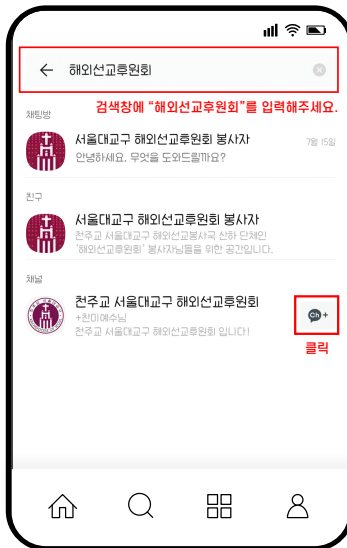
후원 신청 QR

# 해외선교후원회 카카오톡채널 추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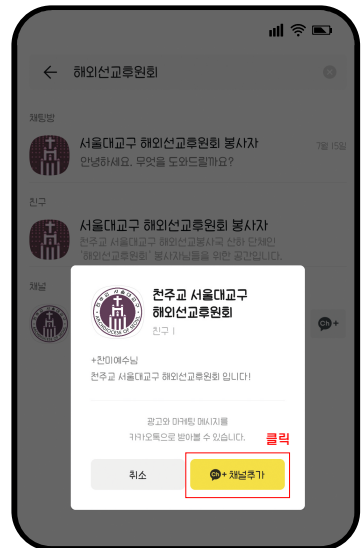
## 채널 추가 방법 ①



- 1 카카오톡 실행 후 상단 위의 **홍보기 이미지** 클릭!



- 2 해외선교후원회를 입력한 후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버튼** 클릭



- 3 **채널추가** 아이콘 클릭

## 채널 추가 방법 ②

###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 1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2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 3 홈에서 채널 추가



※ 채널에 가입하시면 모바일을 통해 소식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받는 소식을 원하지 않는 분께서는 사무실로 필히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회 월례미사

매월 첫 목요일

일시: 2023년 7월 6일(목) 오후 2시

장소: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대상: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집전: 송영호 안토니오 국장신부,  
김윤상 프란치스코 차장신부

## 공지사항



### 회원정보 변경 요청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 회원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소식지 반송 및 기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필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회 사무실 안내

업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교구청 휴무일 제외

##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소명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신부님께서는 **해외선교봉사국 사무실**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2)727-2424

모임	날짜	시간	장소
해외선교 희망사제 모임 (담당 차장 신부 주관)	7월 17일	오후 5시	교구청 별관 5층 회의실
	10월 23일		
해외선교 지원사제 모임 (담당 주교님 주관)	8월 21일	오후 5시	교구청 본관 3층 3회의실
	11월 27일		